북-미 '强대强' 정면대결 치닫나

北 안보리 제재 강력 반발 "우라늄 농축 착수" 선언

플루토늄 무기화·군사적 대응도…한반도 긴장 고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 후 북·미간에 첨예한 대립구도가 조성되면서 남북관계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현지시간 12일 북한 핵실험에 대해 전례없이 강도 높은 제재 결의 1874호를 채택하자 북한은 1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우라늄 농축 착수를 천명하는 것으로 맞섰다.

북한은 1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안보리의 대북 결의 1874호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우라늄농축 작업 착수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 ▲봉쇄시 군사적 대응 등 3개 대응조치를 선언했다.

이에 앞서 유엔 안보리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징계하기 위한 대북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공식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 1874는 지난 10일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이 참여한 주요국 회의(P5+2)에서 최종 합의된 결의안 초안에서 한 글자도 수정되지 않은 것으로 대북 무기금수, 금융제재, 화물검색 조치들을 확대하고 있다.

또 그 이행에 있어서도 훨씬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된 결의가 채택됨에 따라 향후 제재 이행 정도에 따라 북한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구체적 제재로는 무기금수 대상을 핵과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와 중화기 등에서 거의 모든 무기로 확대하고, 금수대상 품목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공해상에서도 기국의 동의를 얻어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심 선박에 대한 연료 공급도 금지했다.

금융제재도 기존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개인 및 기관의 금융자산만 동결하던 것에서 인도주의적이거나 개발 목적 등을 제외한 금융지원을 하지 말도록 하는 등 북한의 무기 개발·거래 활동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북·미가 강대강 대치로 맞서면서 정부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좁아지고 있으며 남북 양자간 노력을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 역시 높지 않다는 게 정부 안팎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현재 북한이 핵을 카드로 미 오바마 행정부와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수교 등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협상을 할 것이냐, 핵보유국으로 돌진할 것이냐 사이에서 대외 정책적 고려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그에 종속된 과제가 되고 있는 양상이라는 것이다.

비록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의 칼날이 개성공단에 미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북한의 핵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실효적 제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이 때 인도적 대북지원 또는 고위급 당국간 대화를 추진할 때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기류다.

결국 남북관계는 북·미간 본격적 대화국면이 조성되기 전까지 '악화'와 '현상 유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연합뉴스

폭풍전야 연평도 '철통경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14일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해군 장병들이 철통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한미정상회담…대북 대응 방안 주목

李대통령 방미 출국

1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회담은 특히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한미 양국의 대북 공동대응 방안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내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oval office)'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갖는다.

두 정상은 이어 백악관 정원인 '로즈 가든(rose garden)'으로 자리를 옮겨 CNN 등 5개 미 전국 TV 채널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백악관내 '가족연회장(family dining room)'에서 오찬을 함께 한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후 한미동맹의 강화 원칙과 지향점을 제시하는 '한미동맹 미래비전(the joint vision for the ROK-US alliance)'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미동맹 미래비전'에는 한미동맹을 안보 위주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로 확대·강화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이바지하는 차원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또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협을 제거한다는 종합 방위동맹을 뜻하는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 개념도 한미동맹 미래비전에 명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4월 정상회담에서 언급됐던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진전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하고 산업기술 협력, 저탄소 녹색성장 등 양국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기후변화, 금융위기 극복, G20 등 주요 국제문제에 관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직후에는 미 상원 및 하원 지도부 간담회, 한미재계회의와 미 상의가 공동개최하는 한미CEO(최고경영자) 초청 만찬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

"예멘 피랍 여교사 8월에 복귀 예정"

예멘에서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 여교사는 이웃들과 함께 산책을 위해 움직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국제의료자원봉사단체 '월드와이드서비스'에 따르면 엄모(34·여)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께 예멘 사다지역 인근 지역에 산책을 갔다.

엄씨는 사다의 한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벌이는 같은 단체 소속 독일, 영국인의 가족 등 모두 8명과 함께 산책을 위해 자동차를 타고 이동했다.

봉사단체 관계자는 "예멘은 금요일이 휴일인데 휴일에 마땅히 할 것도 없어 이들 가족이 집에서 차로 15분 떨어진 와디(물이 마른 계곡)로 산책을 다녀오겠다고 했다"며 "오후 6시에 돌아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아 찾아 나섰는데 결국 실종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진시황 병마용서 4두마차 두대 발굴

3차발굴 첫 날…채색 토기·칠기 목기도 발굴

세계 8대 기적으로 불리는 중국 진시황의 병마용(兵馬俑)에서 13일 처음으로 앞뒤로 나란히 서 있는 4두마차 두대가 발굴됐다.

병마용 발굴단은 진시황 병마용 1호 갱에 대한 3차 발굴이 시작된 첫날인 이날 앞뒤로 일렬이 된 4두마차 2대를 발굴했다고 밝히고 이런 형태의 4두마차 발굴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병마용 박물관의 차오웨이(曹瑋) 부관장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발굴 첫날 4두마차 이외에 채식 병마용 두개와 채색 토기 파편, 그리고 칠기 목기도 발굴돼 많은 채색 병마용의 발굴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채색 병마용와 함께 장군용과 문관용이 나올지도 중국 고고학계의 최대 관심거리이다.

길이 230m, 넓이 612m, 총 면적 1만4천260㎡ 규모인 1호 갱에는 6천여개의 병마용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중국은 1978년부터 시작된 1호 갱에 대한 2차례의 부분적인 발굴을 통해 1천여개의 무사용과 6개의 전차용, 24개의 우마차용, 검과 창 등 각종 무기용을 발굴, 복원했지만 완전한 형태의 장군용이나 문신용은 출토되지 않았다.

1985년 진행된 2차 발굴 과정에서 장군용이 출토됐지만 실수로 머리 부분이 부서진데다 채색된 병마용이 햇빛에 노출돼 색이 바래지자 중국 당국은 병마용 보호를 위해 서둘러 발굴을 중단했다.

1974년 우물을 파던 농부에 의해 그 존재가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진 병마용 갱은 1976년까지 진시황릉에 딸린 4개의 갱이 발견됐으나 이 가운데 4호 갱은 완성되기 전에 폐기된 빈 갱으로 확인됐다.

2호 갱과 3호 갱의 규모는 각각 6천㎡와 520㎡로 1호 갱에 비해 규모는 훨씬 작지만 3호 갱의 경우 군사 지휘부로 추정되고 있어 고고학적 가치는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세계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는 취리히"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스위스의 호반도시이자 금융 중심지인 취리히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3일 주말판 섹션에서 월간지 '모노클(Monocle)'을 인용, 작년 '가장 살기 좋은 25곳' 조사에서 4위를 차지했던 취리히가 올해는 1위로 뛰어올랐다고 전했다.

지난 2007년 영국 런던에서 창간된 모노클은 '포린 폴리시'와 '배너티 페어'의 중간 성격의 시사·교양 잡지를 표방하고 있으며 매년 6월 살기 좋은 도시 순위를 발표한다.

첫해(2007년)에는 독일 뮌헨이, 작년에는 덴마크 코펜하겐이 정상에 올랐었다. 작년 1위였던 코펜하겐은 2위로 밀렸고 3위는 일본 도쿄로 작년과 변동이 없었다. /연합뉴스

마이니치 "김정운 16세 사진 입수"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14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급부상한 정운(26)씨의 16세 때 사진을 입수했다며 1면을 통해 보도했다.〈사진〉

이 사진은 정운씨가 '박운'이라는 가명으로 스위스 베른의 공립중학교 7학년 재학 당시에 급우들과 함께 찍은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사진은 짧은 스포츠형 머리에 검색 라운드 티셔츠를 입었으며, 금색으로 보이는 목걸이도 한 모습이었다.

마이니치신문의 정운씨 사진 보도는 지난 10일 TV아사히가 정운씨 사진 오보 소동을 일으킨 직후에 이뤄진 것이어서 최종적으로 이 사진이 정운씨 본인인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그동안 정운씨는 박철이란 가명으로 베른 국제학교에 다녔다는 정보가 각국에서 보도됐지만, 북한 정보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박철은 정운씨의 형인 정철(28)씨 라고 마이니치에 밝혔다.

신문은 정운씨의 유학 중의 얼굴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동안 정운씨의 사진은 11세 때로 보이는 1장만이 외부에 알려졌으나, 자사가 입수한 사진은 16세 때인 1999년 6월에 촬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